

규모보다 내실기해 직매장, 계분처리장 공동운영하여 어려움 극복할 예정

— 홍보 부 —



△ 월례회를 통하여 정보를 정확히 전달한다.

충남 연기, 천안, 아산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계란 유통에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서 난가고시조차 하지 못하는 불운한 사태로까지 생산자간에 불신과 갈등이 많아 심한 몸살을 겪었다.

심지어 얼마에 계란을 출하해야 합당한지조차 모르는 사태에까지 이르러야 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자각과 이대로 간다면 농가는 도산에 이른다는 비장한 각오로 뜻을 함께 하는 생산자들이 모여 천안연기분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분회 설립 초창기에는 박찬우 고문과 김두현 1대 회장, 이계순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음성 일원까지 활동무대를 넓혀 '93년 8월 친목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던 수준에서 계우회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95년 12월 20일자로 본회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기채란분회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는 이계순사장이 분회장을 맡고 있는데 20명 회원은 분회장을 중심으로 초창기 회장을 맡았던 박찬우 고문과 홍명식 총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채란인으로써 권익을 찾기 위해 단결해 나가고 있다. 천안연기분회는 3만수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 양계인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있는데 무리한 투자가 없었던 관계

로 IMF 시대에도 금융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위험부담을 줄이고 소득 올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주문사료 형식으로 공급을 받는데 단순히 사료라는 개념보다는 수익에 중점을 두어 기술지도까지 병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였는데 근 4년간 인천의 부국사료와 의견교환을 해가며 산란율, 난질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품의 경우는 2개사 대리점을 선정하여 각 농가가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하여 경제적인 잇점과 질병예방의 효과도 거두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각종 생산자재까지도 공동구매를 하여 폭리와 불량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기채란분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금년 중에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한 직매장을 설치하고, 이 사업이 달성되면 곧바로 계분처리장을 만들어 회원농가의 고품인 계분처리까지



△ 박찬우 고문



△ 홍명식 총무

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천안권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1일 약 10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중 회원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은 38만개로 집계된다.

계란출하는 대전·충남양계 축협이나 각자 상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채란업계에서 난가고시를 인정받지 못해 늘 2~3중 다운으로 손실이 커지자 지난 해인 '97년부터 제우회의 힘을 발휘하여 대전·충남권의 난가고시

를 실시하여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거래 기준이 마련되어 다소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천안연기채란분회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채란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각오로 농장경영에서 얻은 교훈대로 회원만 늘리기 위해 무리한 가입 권유를 자제하고 있으며, 회원 영입시에도 만장일치제도를 도입, 분위기 조성에 비중을 높이면서 두달에 한 번씩 부부동반 월례회를 개최하여 정보교환은 물론 친목도모의 2중 효과를 거두고 가족 노동 위주의 양계 농장 경영에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用) 양계

회원명단

- 박찬우 고문,
- 이계순 회장,
- 홍명식 총무,
- 공지호, 김경우, 김홍구,
- 박창순, 도은구, 신원섭,
- 윤영수, 장태성, 최영길,
- 최정필, 박수옥, 윤태중,
- 석항자, 유진성, 김광오,
- 김정우, 이상균, 정규환